

# 서약서(1)

나는 거대한 하룻밤의 고독을 겪었습니다. 청천벽력같은 마음의 잔잔함의 죽음과 자살을 느꼈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아니었고, 바람도 알지 못하던 것이었고, 전혀 감정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적을 맞이하고 잠자면서도 그 작은 비교와 억울함과 환청에 섞이어 환각을 맞이하며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머니요?

“왜, 그러니? 앓았다 섰다, 왜 그러니? 니 모양이 초라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그리고 싶지만, 마음처럼 움직일 수 없는 간단한 부조화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몸을 더 괴롭히고 쓰디쓴 밤낮을 하수구에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느꼈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잠을 청하고 자살하려, 도로가에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분열병(조현병, 파킨슨병) 이것은 몸이 괴로운 병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욱 괴로운 병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하죠? 다, 아는 이야기라도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며 살라고, 그리고 취미를 가지라고, ‘마음을 잡으라고’ 그말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정신상태가 정말 억울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울먹이며 버티고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생각은 멈추지 않고 죽음으로 치달았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나에게 ‘일명, 칠칠이’ 라는 짐승이 와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취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과 자연을 보며, 방송을 따라 손가락에 걸리는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이 모든 세상은 소리가 폭발이다. 그것만 없으면 되겠다. 소리가 폭발이 되어 돌아오고, 마음이 급해져 몹쓸 병에 걸렸다. 그리고 향기는 부처님같이 보이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론 칠칠이의 향기가(콩콩대는 맛), 때론 이웃의 말투며, 거들떠보고 인사하는 경비들이 정겹게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점점 급해지던 심장과 온몸을 진정제를 먹인 것처럼 바람결에 누워 잠들게 되었지요, 이것으로 병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압니다. 때론 만남보다, 엇갈림과 엇박자가 더 흥미롭다는 것을 압니다. 맛이 같으면? 이집트인들이니까 목욕하다 죽겠죠? 지금만 아니, 물범같고, 세민없나요?

각자의 근심과 걱정이 1초를 앞선다면? 매 사건마다 몇 번의 고비를넘기는 것인가? 몇번의 고통을 넘은 것인가? 모두 공유하면, 앞을 막아선 갈등에 큰 희망이 되지 않는가? 다 극복한 후, 다시 보는 시각은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개인의 앞에 하나의 고비는 거대한 소비와 다르지 않다. 이것을 잘 분석만 한다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한후 맞이한 공기인가? 자신을 살인하고 싶어 안달하던 그 길에서 나는 이렇게 신선한 호흡을 맞이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역사를 걸었던 그 호흡과 심장을 이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약서(2)

나는 기밀사항이 함유된 기름과 같은 우정과 사랑과 밀정에 노출되어도, 가상의 적으로 여김에서 두르지 않는다. 다만, 그 기적에 임할 때 몸을 보호하며 사실에 준거하여 나드리에 힘을 보탠다. 살짝 기절한 상태에도 자신을 위한 몸부림을 살리며, 무덤가로 가지 못하게, 사람의 성실과 진실을 따라 증거를 손에 주워, 멈추지 않는 바를 글로 쓰리라. 글은 상부에 보고함에, 여실히 짜증나지 않는 진실과 뿌듯함으로 잠을 청해야 한다. 당신의 글과 몸은 큰 재산이며,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여 보상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졸음과 수술로 일정이 취소되면 알려 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하늘에 불빛의 유형에 따라 입체를 보아, 나서지 말아야 한다. 성명함에 노린다.

20 년 월 일

(인)

## 土亭秘訣에 한 귀인이 다녀갔다

한귀인아! 너는 하늘이 배로 보이느냐? 하늘 가득 배라면, 잠자서라도 멸하니, 가능하면 비라도 내려, 어리석은 자에게 쏟아져라!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암살당할까 하는 동안, 먹을 것이 달달하니 입안을 가득 메운다, 그러니 잠이 들어 숨이 막히어 깨보니,

그것이 가슴을 누르고, 하늘가득 창과 검이 난무하며 깃발이 휘청거리도록 덩달아 날씨도 바다도 사람들의 피바람도 어릴적 기억을 깨끗하게 잊게 하는구나! 그러니 한가을에도 소름이 돋아,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이들을 거역하면 ‘역적’이 아니라! 천사다. 이들에게 붙어라! 그러나 뜻이 굽혀질 때 근속 깊숙이 창을 숨기듯 뜻을 숨겨 차갑고 차가운 얼굴을 골라 그리고는 동굴이나 그 느낌인 곳에 터를 잡아라! 이들이 날뛰면?

“앗! 법없는 세상이다! 이들이 괴물이다! 이들을 가두어라!”

이곳이 그곳이니라! 잠깐 눈붙이려면 읽고 일삼어라! 여기서 ‘글이란 글’, ‘교생이란 교생’, ‘말이란 말’ 은 다 없어진다. 만일 그것을 안다 하거든 세 번 무시하고 떠나라!

# 하룻밤 거하소

주인

(인)

나는 심적 고통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여,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공부며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귀인께 고합니다.

기일 : 20    년    월    일

가족 내역 : 2남 2녀 의 장남?(\* 필수 기재사항)

핸드폰번호 : 급한 전화

취사금지 : 미상

# 하룻밤 묵소

주인 (인)  
옆집주인 (인)

나는 심적 고통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여,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공부며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귀인께 고합니다.

기일 : 20    년    월    일

가족 내역 : 2남 2녀 의 장남?(\* 필수 기재사항)

핸드폰번호 : 급한 전화

취사금지 : 미상

## 첨부사항

1. 소문에 민감한 것은 연락하지 않는다.
2. 소문으로 엮이면 한 것으로 쓴다.
3. 소문으로 짜면 한 것으로 한다.
4. 소문 뜸들여?, 피난처이다.
5. 내용,
  1. 알아도 안준다. 버티다 피를 묻힌다. 죽을 시늉에 박수를 친다. 기쁘다 못해 양증 맞다. 일주고 부리지 않아 버린다.
  2. 작심하여 나를 부대끼게 일하게 한다. 집진기다. 그리워 삭삭 합격시킨다. 노닥거리는 화장실이다. 스스럼없는 호두다.
  3. 허다하게 선물공세다. 이어서 영수증이다. 먹이는 새다. 또니까 서슬 퍼렇다. 잠가 놓는다.